

멕시코 스페인어, 그 어휘교육에 대하여

서 경 석

단독/대구가톨릭대학교

Suh, Kyung-Suk(2005), El español de México, sobre la educación de su vocabulario, Revista Iberoamericana, 16, pp. 65-92.

Sabiendo que en Corea, predomina, en la enseñanza del español, el español de España, ya se había propuesto qué español hay que enseñar, entre el español de América o el español peninsular. A pesar de no pocos rasgos comunes, el español americano presenta diferencias con respecto al español peninsular. El español llevado a América por los conquistadores evolucionó de distinto modo según las regiones y las zonas de la influencia de las lenguas indígenas. Bajo estas diferencias entre dos españoles, creemos que para la comunicación básica en la sociedad hispanohablante será más práctico el buen entendimiento del léxico de ambos. Por tanto, en este estudio tomamos léxicos básicos en el español de México, los clasificamos por sus características y los agrupamos según las relaciones con el español de España con el objeto de ayudar a la clase del español comunicativa. El español americano en general y mexicano en particular puede decirse que, en algunos aspectos, es simultáneamente conservador e innovador en relación con el español europeo. Es decir, unos vocablos vigentes en el español mexicano actual y poco empleados en el peninsular son arcaísmos mexicanos en relación con el español de España. Es indudable que en el español hablado en México son abundantes los indigenismos, particularmente los de origen náhuatl. Además, en el español mexicano actual existe un buen número de neologismos o de vocablos que siguieron un derrotero americano, distinto del que siguió la lengua en Europa. En la enseñanza del español deben considerarse estas cosas y darse suficientes vocablos de ambos españoles. Aquí escogimos unos vocablos básicos del español mexicano y proponemos el método necesario para enseñarlos.

Key Words: Léxico/ Español mexicano/ Enseñanza del español, 어휘/ 멕시코 스페인어/ 스페인어 교수

I. 서론

20여 개에 달하는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사실상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서 스페인어 중에서 과연 어느 지역의 언어가 표준어인가 하는 문제가 종종 제기되기도 했으며 따라서 스페인어 교육에서도 어느 스페인어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질문도 계속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¹⁾ 이런 문제는 스페인어 사용자 수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스페인과 대부분의 사용자가 있는 중남미 간에 기본적인 언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스페인어 교육은 스페인어 사용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스페인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되어왔고 앞으로 당분간도 그것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남미 스페인어는 사실상 다수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교육의 대상으로서는 항상 뒷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언어간에는 우열이 없고 의사소통이 주목적이라는 견지에서, 대다수가 사용하는 중남미 스페인어, 특히 멕시코 스페인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스페인어 교육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 간의 표준성의 문제는 단순히 표준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에서 과연 어떤 스페인어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고민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론은 각 지역의 언어차이를 지적하면서 두 지역 언어의 적절한 분배교육 내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그치고 말았던 감이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표준어의 지정 여부를 떠나 교육 수요자들이 어떻게 스페인어를 배워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가가 스페인어 교육의 주 목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다.

1) 유해명(1995)과 김우성(2000, 2001)에서 이미 스페인어 교육에서의 표준어 문제 및 교육언어 선택에 관하여 언급한 선행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의 차이에 직면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스페인 스페인어 중심으로 교육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한 앞으로 다수가 사용하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교육이 절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언어 교육의 주 목표인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두 언어 사용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들을 찾아보고 두 지역에서 아무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려 한다. 특히 어휘의 문제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본고에서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멕시코 스페인어

1. 중남미 스페인어

오늘날 스페인어는 어느 특정지역 하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비중 있는 여러 개의 체계들이 모여서 보다 복합적인 언어체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분류해 왔듯이 스페인어를 단순히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의 대립으로 보거나 지역 언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어들의 공통적인 규범이 모두 모여서 일반 스페인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멕시코 스페인어는 그 규범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 언급한 표준어의 문제나 교육에 필요한 언어 선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언어체제를 모두 교육하기보다는 스페인 스페인어를 중심 교육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것은 이미 김우성(2001)도 지적했듯이 현재 스페인어를 세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국가가 경제적인

로 앞서가는 스페인이고, 대부분의 교재들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출판되기 때문에 스페인 스페인어는 복합적 체계 중의 하나이지만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남미 스페인어는 스페인어가 중남미에 도착한 이후 여러 지역에 정착해 가며 변화를 시작하여 본래 스페인어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 따라서 중남미 스페인어는 정복초기부터 다양화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각 지역의 원주민어의 영향이라든가 중남미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의 출신지역, 또는 정복 이후에 스페인과의 접촉의 정도에 따라 중남미의 스페인어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르게 변해가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는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경향도 나타난다. 통속언어 사용에 대한 반동적인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언어 변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면이 있고, 반대로 언어 변화에 있어서 오히려 과감하게 변해가는 혁신적인 면도 보이고 있는 것이 중남미 스페인어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남미 스페인어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어간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니다. 사실상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의 많은 부분이 이미 스페인의 카나리아제도나 안달루시아, 갈리시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지역을 비교해 볼 때,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발음과 억양 등의 음성적인 면의 차이를²⁾ 제외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주로 어휘 부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어휘부분에서 쉽게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이유를 모레노 데 알바(Moreno de Alba:2003)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로 초창기의 정복자들은 새로운 사물을 접할 때에 토착민들의 어휘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스페인어에는 많은 원주민 토착언어 어휘가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포함된 토착 어휘는 많은

2) 주요 특징으로는 d-의 빌라 내지 약화현상, -s의 약한 기식음화, yeísmo, seseo 등을 들 수 있다.

경우가 스페인으로 전해져 자연스럽게 스페인에서도 이해가 되었으나, 그 사물이 중남미에만 존재하게 되는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남미에서만 사용됨으로 인해 두 지역의 어휘는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둘째로는 같은 스페인어 어휘도 스페인과 중남미의 지리적, 사회적 차이와 교류 정도에 의하여 변화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에서는 이미 변화하여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중남미에서는 계속 사용되기도 하고, 중남미 자체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어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남미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나름대로 영어나 불어 등 세계의 각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겨난 어휘 등은 스페인의 스페인어와는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들의 수효는 일반적인 스페인어의 수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지만, 그 중 일부는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휘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어휘의 차이들과 함께 음성학적, 형태 통사론적으로 구별되는 요소들이 지역적으로 달라지면서 중남미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사용자의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스페인어 원어민에게보다는 사실상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더 크게 미친다고 보겠다.

2. 멕시코 스페인어 어휘의 특징

멕시코 스페인어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일반적 특징인 음성, 형태, 통사 등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보수성과 혁신성 등의 양면성을 포함하지만 어휘만큼은 지역성이 두드러져서 멕시코 스페인어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이나 중남미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진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전통 보수성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어휘의 생성하고 어휘를 흡수하는 혁신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DRAE는 많은 스페인어 사용국가에서 발생하는 어휘적 차이들

을 가능한대로 포함하고 있지만, 광대한 지역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휘들의 미세한 특징들까지 포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요소들만으로 구성된 구별된 사전들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1996년에 *Diccionario del español usual en México*를 통해서 현대 멕시코의 어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멕시코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들만을 다룬 *Breve diccionario ejemplificado de mexicanismos*³⁾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2001년에는 *Diccionario breve de mexicanismos*가 출간되는 등, 멕시코 스페인어에서 고유의 어휘부분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Mexicanismo에 속하는 어휘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 스페인어로 바뀌는 경우도 볼 수 있다.⁴⁾ 여기서는 중남미 지역의 어휘의 일반적인 특징 4가지⁵⁾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속하는 주요 멕시코 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하도록 한다. 특히 고유의 중남미 및 멕시코 스페인어 어휘로 주로 인용되는 어휘⁶⁾들 중에서도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제외시키며 선택했고, 또 멕시코 현지 생활⁷⁾ 속에서 얻은 실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어휘자료들과 멕시코 어휘사전을 참조하여 분류 제시하였다.

(1) 의고주의

라틴어가 이전 년 전의 세계의 언어였다면 스페인어는 16, 17세기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제국의 성립과 함께 한 언어가 동반자로서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제국이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가와는 별도로 어느 제국에서든지 공통적인 언어원칙을

3) 이 사전의 특징은 비스페인어 사용자 즉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교수나 학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4) 이를테면 *azteca*, *maguey*, *mariach*, *peyote*, *tabaco*, *tomate* 등은 일찍이 일반 스페인어화 하였다.

5) Moreno de Alba(1999)를 참조하되, 이 특징은 이미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Moreno de Alba(1999)의 어휘분 기본적으로 인용했으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인용하지 않았다.

7)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멕시코 살리미에 거주하며 직접 수집한 것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원칙이란 마테오 바르톨리(Matteo Bartoli)⁸⁾에 의하면 제국의 주변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언어사용에 있어서 중심지역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스페인어의 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스페인에서의 스페인어와 멕시코 스페인어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멕시코 스페인어는 스페인 스페인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16, 17세기에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던 어휘들이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멕시코 스페인어의 의고주의 현상으로 부르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어휘 수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영향이나 새로운 변화로 인해 어휘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해 스페인어 옛 어휘의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는 편이 나올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현재 멕시코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어휘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acalenturado(격렬한, febril), acuerdo(회의, reunión/consejo (de ministros)), zonzo(바보, tonto), aldaba(빗장걸이, travesaño), alzarse(꺾기하다, sublevarse), apeñuscarse(가득차다, apiñarse), amarrar(묶다, atar), anafre(난로, hornillo), bagazo(과일쥬스 만든후의 찌꺼기), balde(물통, cubo), boruca(야단법석, bulla), bravo(용감한, valiente), capaz(가능한/쉬운, fácil, posible), caporal(두목/리더, jefe), chabacano(살구, albaricoque), chapa(자물쇠, cerradura), chícharro(완두콩, guisante), carpeta(테이블보, tapete de mesa), desvestirse(옷을 벗다, desnudarse), cobija(담요, manta), correr(몰아내다, echar/despedir), despacio(조용히, quedo/en voz baja), día lunes(월요일, lunes), día martes(화요일, martes), dilatar(늦어지다, tardar), droga(빚, deuda), emprestar(빚지다), enojarse(화내다, enfadarse), ensartar(la aguja)(바늘에 실을 꿰다, enhebrar), esculcar(조사하다, registrar), expandir(확장하다, extender), frijol(강낭콩, habichuela/judía).

8) Moreno de Alba(1999)에서 재인용.

fundir(망하게 하다, arruinar), gritadera(아우성, griterio), hambreado(배고픈, hambriento), hechizo(손으로 만든, hecho a mano), lindo(예쁜), liviano(가벼운), machucar(짓이기다, machacar), ocurrir(쫓아가다, acudir), pararse(일어서다, ponerse en pie), pollera(치마, falda), postergar(연기하다, aplazar/diferir), prieto(갈색의, moreno), recibirse(학위받다, tomar un grado académico), recordar(잠에서 깨다, despertar), renco(절름발이, cojo), resfrío(감기, resfriado), retobado(투덜대는, rezongón), rezago(늦어짐, atraso), sancochar(찌다, cocer a medias), sobajar(망신주다, maltratar), temblor(지진, terremoto), torzón(복통, cólico), trastabillar(비틀거리다, tambalear), tusar(깎다, trasquilar), valija(가방, maleta).

(2) 원주민어 영향

멕시코 스페인어의 특징의 또 다른 하나는 원주민 언어의 영향으로 특히 나우아틀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⁹⁾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 이전의 원주민들의 언어가 멕시코 스페인어에 음운적으로나 문법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어휘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나우아틀어의 어휘들은 이미 많은 어휘가 일반 스페인어로 정착했으며(tomate, hule, chocolate, coyote, petaca,...) 멕시코 스페인어에는 훨씬 더 많은 어휘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 어휘들은 스페인어가 갖고 있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는 것들로 식물군, 동물군, 음식 이름 같은 특별한 어휘 집단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어휘들은 일찍이 16세기 초경에 멕시코의 지역 언어로 흡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비록 멕시코에서만 사용될지라도 일부 어휘들은 그 사용 빈도를 고려해 볼 때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 역시 의고주의와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 말고도 원주민어원의 어휘는 적지는 않지만 그 수효는 역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나우

9) 사실 스페인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아메리카 원주민어는 파이노어로 나우아틀어나 케추아어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파이노어는 스페인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먼저 접한 언어로 maíz, canoa, tabaco, bohio 등이 여기서 전해졌는데 이 원주민의 흔적이 전혀 남아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들의 영향을 받은 주요 어휘는 다음과 같다.

식물군

aguacate, ahuehuete, amate, cacahuate, cacao, capulín, copal, cempasúchil, chahuistle, chayote, chicalote, chilacayote, chile, chimalacate, epazote, ixtle, huizache, jícama, mezcal, mesquite, nopal, popote, quelite, tehuistle, tejocote, toloache, tomate, zapote, camote, jitomate, tequila

동물군

ajolete, cacomistle, sensonte, cenzontle, coyote, chachalaca, chapulín (saltamontes), guajolote.(pavo), jicote, mapache, ocelote, quetzal, tecolote (búho), tlaconete, huachinango, zopilote

기타(음식, 사물)

cuate(gemelo de un parto), chicle, chichi(pecho, teta), galpn, huacal, jícara, machete, mecate, papalote(cometa/volantín), reata(cordel), totopos, zacate(hierbajo/estropajo), jacal(choza), huarache/cache(sandalia), chilaquiles, escuincle/chamaco(niño), tatamar(chamuscarse/tostar/quemar), jalapa, jalapeño, comal, mole, pinole, pozole, tamal, atole(papilla), milpa(maizal), ejotes (judías verdes), huacal, cacastle, chiquihuite, ayate, huipil, metate, tianguis, ixtle, molcajete(mortero de cocina), tianguis(mercado indígena al aire libre), tlalalera(un tipo especial de ferretería), chipichipi

나우아틀어가 아닌 다른 원주민어에 어원을 둔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bejuco, ceiba, papa, cherimoya, guanábano, guayaba, henequen, maguey, mamey, papaya, cocuyo, comején, condor, guacamayo, iguana, jején, loro, puma, tapir, tucán, tiburón

(3) 새로운 어휘 변화

앞에서 언급한 의고적 보수적 어휘들과 원주민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

들 이외에 멕시코 어휘의 특징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멕시코 나름대로의 새로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 변화로 인해 현재 멕시코의 적지 않은 어휘들이 스페인의 스페인어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이는 스페인어가 멕시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형태로 굳어지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어휘들은 멕시코의 독창적인 어휘일 수도 있지만, 중남미에서 통용되다가 의미가 변화하여 멕시코 어휘로 남게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멕시코에서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도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스페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멕시코의 어휘로 간주한다. 멕시코의 어휘와 중남미 지역에서 통용되는 어휘들을 분명히 나눈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며, 본고에서는 스페인 스페인어와는 다르게 멕시코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스페인어 어휘에 포함시킨다.¹⁰⁾ 여기에 포함되는 어휘들은 그 수요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어휘일지라도 내일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현재의 주요 멕시코 어휘를 예를 들어보면,

신체, 질병

cachetes(mejillas), manzana(nuez), perrilla(orzuelo), cucho(labio leporino),
anginas(amígdalas), deponer(vomitara)

10) 멕시코 어휘화는 mexicanismo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스페인의 스페인어를 단순히 유럽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이 중의 하나로만 간주한다면 주로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에는 españolismo라고 할인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미 Moreno de Alba(1999,144)는 예를 들어 아래의 필호안의 단어들이 españolismo에 속하는 단어라고 주장한다. jugo(zumo), carnes frías(fiambres), chicharos(guisantes), durazno(melocotón), zipper(cremallera), carril(vía), suéter(jersey), terreno(solar), orfanatorio(orfanato), boleto(billete), anales(faro), intermitente(indicador de giro), manubrio(manillar de la bicicleta), boliche(bolera), cacahuete(cacahuete), mezquino(lobanillo), botanas(tapas), menudencias(despojos), valeriana(vuelta), pantaletas(bragas), terno/juego de sala(tresillo), refrigerador(frigorífico), encendedor(mechero), ciudad perdida(chabolos), estacionamiento(aparcamiento), monitos(tebeos), luneta(patio de butacas), sirvienta(doncella)

음식

jugo(zumo), antojitos(aperitivos/tapas), pan tostado(tostada), carnes frías (fiambres), arvejas(guisantes), tostada, torta, cantina(taberna), moronga (morcilla), picoso(picante), taco, paleta, taquito, enchilada, arvejón(완두, almorta), frijol(팥, judía), quesadilla, ejote(judía), cenaduría, menudería, nieve(helado), durazno(melocotón), tortilla, durazno(melocotón), ostión (ostra), chile(pimiento/ají)

의상, 집, 도시 등 생활

saco(chaqueta), zipper(cremallera), suéter(jersey), bolsa(bolso), exprimir la ropa(escurrir la ropa), bolear los zapatos(limpiar los zapatos), agujetas (cordones de los zapatos), bóiler(calentador de agua), buró(mesita de noche), bachicha(colilla del cigarro), rentar(alquilar), alberca(piscina), penthouse/último piso(ático), panteón(cementerio), nieve(helado), reventar, banqueta(acera), nevera(heladería), petaca(maleta), cubeta(cubo), fólder (carpeta), lavadero(pila), terreno/lote(solar), chamba, morgue(depósito de cadáveres), orfanatorio(orfanato), aventón, sócket(portalámpara), aparador (escaparate), el radio(la radio), recámara(dormitorio), ranchera, evento ‘suceso importante y programado’(esp. suceso imprevisto), engargolar/engargolado(encuadernar), enganche, platicar(conversar), mono (peluche), reventón(juerga/diversión), credencial(carnet), lechuguilla, conductor(진행자, presentador), mesero(camarero), aparadorista (escaparatista), aventar (arrojar), zancudo(mosquito), arrejuntarse(동거하기 시작하다, amancebarse), cotorrear, vocero(portavoz), asistente(secretario), jalar(tirar), agrura(acedia), azálea(azalea), azotada(azotamiento), andadera(보행기, andadores), bugambilia(buganvilla), cosquilludo(cosquilloso), candil(상들리에전등, arena), comelón(comilón), banqueta(acera), boliche(bolera/bolo), caballitos(회전목마, tiovivo), cancel(cancela), cantina(taberna), chupete (chupetón), cajuela(차트렁크, maletera), caravana(예의, zalema), chabacano(albaricoque), chocho(gránulo), cigarro(담배, cigarillo), convertible(descapotable), rasurar(afeitar), conferencista(conferenciante), cucharita(작은술가락, cucharilla), cruza(횡단, cruce/cruzamiento), chapuza(trampa), defensa(자동차범퍼, parachoques), gripa(독감, gripe),

magullada/magullón(타박상, magulladura), descompostura(고장, avería), cruda(숙취, resaca), doble u/u doble(w), frijol(frijol/judía), escondidillas(숨바꼭질, escondite), fanático(hincha), gancho(옷걸이, percha/colgadero), hueledenoché(dondiego/galn de noche), revlcada(revuelco), fusilarse(표절하다, fusilar), licorero(licorista), voltear(고개를 돌리다, volver), trusa/traje de baño(bañador), rasuradora(afeitadora), regadera(ducha), visa(visado), volibol(voleibol), tarea(deberes), pantaletas(bragas), ustedes(vosotros), rueda de fortuna(하니문카, noria), volcadura(뒤집어짐, vuelco), clavadismo(다이빙, salto), cuadra(manzana), balacera(tiroteo), reportar(보고하다, informar), porras(hinchas), playera(camiseta), timbre(우표, sello)

자동차 관련

acumulador(batería), clutch(embrague), rayos(radios de la bicicleta), convertible(automóvil descapotable), parrilla(baca), placa(matrícula), tanque(depósito), direccional(indicador de giro/intermitente), dar vuelta(girar), licencia/credencial(carnet), cajuelita(guantera), manejar(conducir), refaccionaria(almacén de repuestos), asiento(sillín)

학교

banca(pupitre del alumno), maestro(profesor de la universidad), egresar(graduarse), licenciado, maestro(profesor), librero(책장, librería), doctorado(doctor), cubículo(despacho), plantel(교육기관, escuela/establecimiento escolar/facultad), pluma(atómica bolígrafo), reprobar(suspender), gis(tiza), dormitorio(기숙사, colegio mayor)

기타

chango(mico/mono), estampilla(sello), manicurista(manicure), alcanca(hucha), pizarrón(pizarra), tareas(deberes), Da de la Raza(Da de la Hispanidad), papa(patata), plomero(fontanero), alcatraz(cala), frijoles(judías), saco(americana), chango(mono), recamarera(sirvienta), planificadora (tahona), sobrecargo(azafata), boleto(billete), trastes(cacharros), cigarrillo(pitillo), cerro(otero), overol

(4) 영어영향

그 외에도 멕시코 스페인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어의 영향(anglicismo)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주민어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영어의 영향은 점차 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전체가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 아래에 영어의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많은 어휘들이 영어로부터 차입되던가 아니면 유사한 표현이 생겨나게 되는데 특히 과학, 스포츠, 경제 부분 등의 분야에서 영어에서 나온 어휘가 사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어 어휘는 중남미 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¹¹⁾ 사전에도 영어에서 파생된 어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¹²⁾ 그런데 멕시코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또 달리, 물론 스페인과도 아주 다르게, 미국의 영향을 직접 받아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어휘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당연히 지리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어휘부분에서만 아니라 음성 및 문법적인 면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어휘 중에 이미 스페인어에 보편화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estándar, snob, pedigree, filmar, beisbol, entrevistó, club, cóctel, cheque, yip(jeep), líder, sandwich, hall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영어와 관련된 주요 어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y(pastel de frutas), panqué(torta), brassiere(sostén), emergencia(servicio de urgencia), pool(billa/juego de billar), basquetbol(baloncesto), single (partido individual de tenis), clutch(embrague del automóvil), grill

11) 외래어의 현상은 스페인의 스페인어에서도 적지않게 나타나는데 다음 어휘들은 멕시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airbag, antibaby, broker, buddy movie, catering, cheer leaders, clergyman, gim-jazz, hidrospeed, hidrobob, hovercraft, husky, jet lag, lamb-wool, legging, minipull, nobuc, pekari, plumcake, pole, position, prime time, raigras, ratio, slip, smash, starlet, starter, stretching, supporters, tipp-ex, trekking, tweed, twinset, vending, zapping

12) 이러한 어휘들은 L. Gómez Torrego(1995). El léxico en el español actual: uso y norma, Madrid, Arco Iris.로부터 Moreno de Alba가 직접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13) 이런 영향들은 최근에 spanglish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와 함께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parilla/establecimiento en que se preparan asados), shorts(pantalón corto), mezzanine(entreplanta), switch(arranque del automóvil), elevador (ascensor), sócket(portalámpara), cabs(furgón de cola), lunch(comida a media mañana), penthouse(último piso de un edificio), office boy (mensajero), pullman(vagn dormitorio), dar polish(brillar el coche), lobby (vestíbulo), locker(armario), carro(automóvil), checar(verificar), hobby, fólder(carpetas), overol(overalls), suéter(jersey), cloch(clutch), réferi (referee), lonchería, clóset(armario empotrado), registrado(certificado), emergencia, elevador

그러나 다음의 어휘들도 멕시코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사용빈도가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⁴⁾

amateur, argot, barman, basket, blazer, blues, boom, boy-scout, bulldog, bulldozer, camping, campús, chance, chic, confort, dribbling, fan, gangster, gay, geisha, gourmet, greenpeace, hockey, hot dog, jacuzzi, jeans, jeep, jet, jet set, ketchup, kindergarten, kleenex, knock out, light, lobby, long ply, lumpen, lunch, mousse, offside, okay, ombudsman, picnic, playboy, punch, ranking, rating, ring, rock, rock and roll, sexy, short, show, souffilsouvenir, sparring, spray, squash, staff, striptease, suite, superman, surf, unisex, vedette, videocassette, walkie-talkie, walkman, zoom

Ⅲ. 멕시코 스페인어 기본어휘와 분류

멕시코 어휘의 특징과 그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구분은 멕시코 어휘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멕시코 어휘의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어의 교육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멕시코 어휘를 모두 학습하려고 하는 것보

14) Moreno de Alba(1999) pp. 147-148 참조.

다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어휘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휘의 특징을 교육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많은 어휘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하여 교육한다면, 서론에서 언급한 표준어 선정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효과적인 언어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기서는 단순히 멕시코 스페인어의 기초 어휘를 제시하기보다는 스페인 스페인어의 어휘와 차이가 나는 점을 분류하여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해 보는데 그 의미를 둔다.

기본어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2장에서 언급된 어휘목록을 가지고 멕시코 거주민에게 문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제시 어휘 중에서 일상 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단순히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기본 어휘라는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 기본용어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문학 작품이나 신문 등 지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휘들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어휘들이 실제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멕시코 스페인어 기본 어휘

- aguacate (나우아틀어원) m. 아구아까페 과일 또는 나무
- agujeta f. 구두끈 cordón de zapatos
- alberca f. 수영장 piscina
- amarrar tr. 묶다, 붙잡아 매다 atar
- angina f. 편도선 amígdala
- antojitos m. pl. 식전 음식, 대중적 고유 음식 aperitivos, tapas
- aparador m. 진열대 escaparate
- atole (나우아틀어원) m. 옥수수로 만든 음료수의 일종 gachas de maíz
- aventar tr. 던지다 arrojar
- aventón m. 무료승차, 태워주기
- balacera f. 총질하기, 총격전 tiroteo
- banqueta f. 보도 acera
- basquetbol (영어어원) m. 농구 baloncesto
- bóiler (영어어원) m. 보일러 caldera

- bolear (los zapatos) tr. (구두를) 닦다 dar bola
 brasier (=brassiere) (불어어원) m. 브래지어 sostén, sujetador
 budín (불어어원) m. 푸딩 pudín
 buró (불어어원) m. 침대머리 탁자 mesa de noche
 cachete m. 뺨, 볼 mejilla
 cajuela f. 자동차 트렁크 maletero
 camión f. 버스 autobús
 cantina f. 술집 taberna
 capaz adj. 가능한, 쉬운 posible
 carne fría f. 차갑게 먹는 음식 fiambre
 carro m. 자동차 automóvil, coche
 cenaduría f. 저녁식사 하는 식당
 chamaco (나우아틀어원) m. 어린 아이 niño, muchacho
 chamba f. 일, 노동 empleo, trabajo
 chango m. 원숭이 mono
 chapa f. 자물쇠 cerradura
 checar (영어어원) tr. 확인하다 comprobar, verificar
 chicle (나우아틀어원) m. 껌
 chile (나우아틀어원) m. 고추
 chipichipi (나우아틀어원) m. 보슬비 llovizna
 chofer (불어어원) m. 운전자 chófer
 cigarro m. 담배개피 cigarrillo
 clóset (영어어원) m. 붙박이 옷장 armario empotrado
 comal (나우아틀어원) m. 진흙으로 만든 일종의 냄비 olla
 conductor m. (방송) 진행자, 사회자 presentador
 conferencista m.f. 강연자, 연사 conferenciante
 convertible m. 오픈카 descapotable
 correr tr. 내보내다, 해고하다 despedir, echar fuera
 credencial m. 신분증 carné de identificación
 cruda f. 숙취 resaca
 cuadra f. 구획, 블록 manzana
 cuate (나우아틀어원) m. 쌍둥이 amigo, gemelo
 cubículo m. 연구실, 사무실 despacho

- dar vuelta intr. 돌다, 회전하다 girar
 descompostura f. 해손, 고장 avería
 desvestirse intr. 옷을 벗다 desnudarse
 Día de Raza m. 10월 12일 축제일 Día de la Hispanidad
 droga f. 빚 deuda
 durazno m. 복숭아 melocotón
 elevador m. 엘리베이터, 승강기 ascensor
 enchilada f. 고기에 토마토, 고추소스를 덮어 찐 옥수수 토르띠야
 enganche m. 할부 선입금, 계약금
 engargolar tr. 제본하다 encuadernar
 enojarse intr. 화내다 enfadarse
 escuincle (나우아틀어원) m. 아이 niño
 exprimir (la ropa) tr. (옷을) 짜다 escurrir (la ropa)
 fólder (영어어원) m. 문서철, 파일 carpeta
 gancho m. 옷걸이 percha, colgadero
 gis m. 백묵 tiza, clarión
 gripa f. 독감 gripe
 guanábano (파이노어원) m. 구아나바나 나무
 guayaba (아라우아꼬어원) f. 구아야보(난석류) 열매
 huarache m. 샌달의 일종 sandalia
 iguana (아라우아꼬어원) f. 이구아나, 도마뱀의 일종
 jalapeño adj. Veracruz 주의, Jalapa 도시의 형용사
 jalar tr. 당기다, 끌다 tirar
 jícama (나우아틀어원) f. 고구마류 덩굴 식물
 jícara (나우아틀어원) f. 박과 유사한 열대식물의 과일
 jitomate (나우아틀어원) m. 토마토 tomate
 jugo m. 주스 zumo
 lavadero m. 설거지통 pila
 licenciado m. 학사 diplomado
 lobby (영어어원) m. 로비, 홀 vestibulo
 lonchería (영어어원) f. 가벼운 식사를 하는 식당
 maestro m. 대학교수 profesor
 maguey (파이노어원) m. 선인장의 한 종류 용설란

- manejar tr. 운전하다 conducir
 mecate (나우아틀어원) m. 끈, 줄 cuerda
 mesero m. 식당 종업원 camarero
 mezcal (나우아틀어원) m. 용설란으로 만든 술
 molcajete (나우아틀어원) m. 맷돌 절구의 일종 mortero
 mole (나우아틀어원) m. 소스의 일종
 mono m. 털 인형 peluche
 nevería f. 아이스크림 가게 heladera
 nieve f. 아이스크림 helado
 nopal (나우아틀어원) m. 선인장의 한 종류
 paleta f. 아이스 바
 pan tostado m. 토스트 tostado
 panteón f. 묘지 cementerio
 papa (께추아어원) f. 감자 patata
 papaya (아라우아꼬어원) f. 빠빠야 과일
 pararse intr. 일어서다 levantarse, ponerse de pie
 picoso adj. 매운 picante
 pizarrón m. 칠판 pizarra
 platicar intr. y tr. 대화하다 conversar
 playera f. 티셔츠 camiseta
 plomero m. 수도 수리공 fontanero
 popote (나우아틀어원) m. 빨대 paja
 pozoles (나우아틀어원) m. 옥수수, 고기 등으로 만든 국물 있는 음식
 prieto adj. 거무잡잡한, 갈색의 moreno
 quesadilla f. 치즈와 고기 등을 넣어 반으로 접어 만든 토르띠야
 rasadora f. 면도기 afeitadora
 rasurar f. 면도하다 afeitarse
 recámara f. 침실 dormitorio
 recamarera f. 하녀 criada, sirvienta
 recibirse intr. 학위를 받다 tomar un grado académico
 refaccionaria f. 정비소 almacén de repuestos
 regadera f. 샤워기 ducha
 rentar tr. 세놓다 alquilar

reportar	tr. 보고하다	informar
shorts (영어어원)	m. 반바지	pantalón corto
sobrecargo	m. 승무원	azafata
suéter (영어어원)	m. 스웨터	jersey
switch (영어어원)	m. 시동	arranque de automóvil
tarea	f. 숙제	deberes
temblor	m. 지진	terremoto
terreno	m. 대지	solar
tianguis (나우아틀어원)	m. 옥외시장	mercado al aire libre
timbre	m. 우표	sello
tlapalería (나우아틀어원)	f. 전과 철물점	ferreteria
torta	f. 반으로 갈라 여러 가지를 넣어 먹는 빵	
tortilla	f. 옥수수 가루로 만든 얇은 전병모양의 먹을 것	
traje de baño	m. 수영복	bañador
ustedes	pl. 너희들	vosotros
vocero	m. 대변인	portavoz
volcadura	f. 전복	vuelco
zacate (나우아틀어원)	m. 목초	hierba, pasto
zancudo	m. 모기	mosquito

여기서는 선정된 기본 어휘를 앞에서 언급한 멕시코 어휘의 특징으로 분류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 지시대상 및 스페인, 멕시코 어휘와의 관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다. 이를테면 한 어휘가 멕시코와 스페인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을 수 있다. 기본적인 언어교육의 목적은 멕시코 스페인어 어휘의 학습이지 어휘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어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멕시코에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별한 멕시코 스페인어 어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려고 한다.

첫째는 한 어휘가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동시에 사용되지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스페인과 중남미 어디서나 사용되는 일반적인 어휘지만 멕시코에서는 다른 의미가 더 첨가되는 경우도 포함

된다. 즉 멕시코 어휘가 스페인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스페인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으나 스페인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멕시코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셋째는 스페인에서는 이 어휘가 없고 멕시코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로, 그 지시대상이 스페인에서는 다른 어휘로 표현되거나 아예 개념이 존재치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전제로 할 것은 인위적으로 스페인 스페인어의 교육을 강조하지는 않았어도 대부분의 교육이 스페인 스페인어 중심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멕시코 스페인어와 대등하게 놓고 교육하기보다는 기존의 스페인 중심의 교육에서 조금씩 멕시코나 중남미 스페인어로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첨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스페인에서도 사용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즉 한 어휘가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camión*은 멕시코에서는 ‘(시내)버스’를 의미하지만 스페인에서는 ‘트럭’을 지시한다. 또한 *cubículo*는 멕시코에서는 ‘연구실, 사무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스페인에서는 단순히 ‘작은방’을 가리키게 된다. 이에 속하는 기본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어휘(멕시코의미/스페인의미)

alberca(수영장/저수지), *angina*(편도선/후두염), *aventar*(던지다/바람을보내다), *banqueta*(인도/의자), *bolear los zapatos*(구두를 닦다/던지다), *camión*(시내버스/트럭), *capaz*(가능한/할수있는, 유능한), *carro*(자동차/짐수레), *chapa*(자물쇠/금속판), *cigarro*(담배/여송연), *conductor*(진행자/운전수), *correr*(내보내다/달리다), *credencial*(신분증/신임장), *cuadra*(구획/길이단위), *cubículo*(연구실/작은방), *descompostura*(고장/무질서), *droga*(빛/마약), *enganche*(계약금/자물쇠), *exprimir la ropa*(옷을 짜다/즙을 짜다), *gancho*(옷걸이/갈고리), *licenciado*(학사/석사), *maestro*(대학교수/선생님), *mono*(털인형/원숭이), *nieve*(아이스크림/눈), *paleta*(아이스

바/손잡), panteon(묘지/신전), recibirse(학위를 얻다/자격을 얻다), pararse(일어서다/멈추다), picoso(매운/곰보자국의), recámara(침실/작은 방), regadera(샤워기/물뿌리개), rentar(임대하다/수익을 얻다), reporter(보고하다/가져가다), temblor(지진/떨림), terreno(대지/토지), torta(둥근 빵/팬케익), tortilla(멕시코 토르띠야/스페인 토르띠야), ustedes(너희들/당신들)

교육방법: 이처럼 멕시코 어휘가 스페인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교 설명을 통해서 교육해야 한다. 즉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양 지역의 어휘를 동시에 비교 설명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기초어휘 carro는 두 지역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데 스페인에서 ‘달구지류’를 의미한다면 멕시코에서의 의미는 스페인의 coche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지시한다는 것이 분명히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conductor는 스페인에서는 보통 ‘운전수’를 나타내지만 멕시코에서는 ‘(프로그램)진행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이 의미로는 스페인에서는 presentador가 사용된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멕시코 어휘가 스페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빈도가 아주 적은 경우

이 경우 스페인어에서는 이 의미로 다른 어휘가 사용된다. 따라서 동일 개념에 대한 어휘가 양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이 두 어휘는 동의어 내지 유사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게의 ‘진열장’을 나타낼 때 멕시코에서는 aparador를, 스페인에서는 escaparate를 주로 사용하고, ‘오픈 카’의 의미로는 멕시코에서 convertible를 스페인에서는 descapotable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어휘/스페인어휘

vocero/portavoz, aparador/escaparate, basquetbol/baloncesto, cachete/mejilla,

cantina/taberna, dar vuelta/girar, chofer/chófer, convertible/descapotable, durazno/melocotón, elevador/ascensor, enojarse/enfadarse, gis/tiza, jalar/tirar, jugo/zumo, lavadero/pila, manejar/conducir, nevería/heladería, desvestirse/desnucarse, platicar/conversar, prieto/moreno, rasurar/afeitar, suéter/jersey, tareas/deberes, rasuradora/afeitadora, timbre/sello, traje de baño/bañador, amarrar/atar

교육방법: 이 경우에는 멕시코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어휘들도 스페인에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스페인의 스페인어 어휘와 같이 동일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어휘지만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기본적인 어휘들은 교육되어야 한다.¹⁵⁾ 이 경우 이미 두 어휘는 존재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뿐이므로 기본적인 동의어 유사어로 두 단어를 교육하고 필요할 때에 구분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지역을 먼저 구분하기보다는 기본어휘일 경우라면 동의어로 교육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앞서 구분한 의고주의적인 멕시코 어휘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 lindo를 멕시코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같은 의미의 hermoso나 bonito등과 같은 동의어로 미리 교육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기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3. 멕시코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이 어휘들은 대부분 스페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어휘들의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생겨나거나 새롭게 변화된 것들로 스페인에서 이 어휘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chamba는 ‘일, 직업’을 의미하는데 스페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checar ‘확인하다’ 역시 스페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스페인에서는 trabajo나 comprobar가 사용된다. 이처럼 동일 개념의 어휘가 두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되 멕시코의 어휘는 스페인에서는 사용(이해)되

15) 별도의 분류가 없더라도 일단 초급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숙지된 기초적인 어휘들의 경우에는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구별되어 사용된다 해도 사실상 의사소통에 별로 문제를 주지 않게 된다. linda/hermosa

지 않는 경우이다.

agujeta, antojito, atole, aventón, balacera, bóiler, brasier, cajuela, carne fría, cenaduría, chamaco, chamba, chango, checar, chipichipi, clóset, comal, conferencista, cruda, Día de Raza, enchilada, engargolar, escuincle, folder, gripa, guanábano, guayaba, huarache, jalapeño, jícama, jícara, jitomate, lobby, loncheria, mecate, mesero, molcajete, nopal, pan tostado, papa, pizarrón, playera, plomero, popote, pozoles, recamarera, refaccionaria, shorts, sobrecargo, switch, tianguis, tlapalería, volcadura, zacate, zancudo

교육방법: 이 어휘들은 특히 기본 어휘들은 교육 초기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동의어라기보다는 지역별 차이를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cajuela는 ‘자동차 트렁크’를 나타내는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어휘로 스페인에서는 maletera 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경우 스페인에서 cajuela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동의어로가 아니라 지역별 어휘 차이로 비교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주민어 어원의 어휘들이 대부분 포함되며 또한 영어에서 흡수 변화된 어휘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1)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어휘

스페인의 어휘가 있음에도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용되는 멕시코 어휘가 있고(bóiler, shorts), 경우에 따라 멕시코와 스페인 두 지역의 어휘가 모두 외래어에서 파생되었음에도 서로 달리 표현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chofer, chófer).

basketbol, bóiler, brasier, checar, chofer, clóset, folder, lobby, lonchería, rentar, reporter, shorts, suéter, switch,

교육방법: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어 파생어휘와 멕시코에서 사

용되는 어휘를 제시하여 비교하며 익히게 한다. 본 영어어휘를 파악하게 하면 한국학생들은 그 어휘의 의미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어야 한다. 비교적 영어에서 파생된 어휘는 한국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다만 자꾸 접함으로서 익숙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학생들이 보고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실제로 작문이나 회화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어의 계속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2) 원주민어에서 나온 어휘

여기에는 이미 그 어휘가 스페인에까지 보편화된 어휘가 있는가 하면 (chicle, aguacate) 아직도 멕시코에서만 사용되는 어휘가 있다(pozoles, escuincle). 멕시코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중에서도 pozoles처럼 그 지시 대상물이 멕시코에만 존재해서 생긴 경우와 escuincle처럼 단순한 원주민어의 잔재가 남아 스페인 어휘 niño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다.

aguacate, chicle, iguana, maguey, mezcal, mole, papaya, atole, comal, escuincle, guanábano, guayaba, jícama, jícara, jitomate, mecate, molcajete, nopal, popote, pozoles, tianguis, tlalpalera, zacate

교육방법: 어휘의 지시대상물이 멕시코에만 존재하는 경우 스페인에는 그 어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순수한 멕시코 스페인어로 보아 이러한 어휘들은 지시대상 사물의 설명과 함께 어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⁶⁾ 이 경우는 바로 문화교육과 연계가 되어야

16) J. M. Lope Blanch(1979)는 원주민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을 다유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어휘, 2. 비교적 많이 알려진 어휘, 3. 조금 알려진 어휘, 4. 잘 모르는 어휘, 5. 거의 모르는 어휘, 6. 실제로 전혀 모르는 어휘. 이 구분에서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부분은 1번일 것이다. 1의 어휘는 멕시코 전 지역에서 쉽게 사용되는 어휘들로 이 중에서 의미에 따라 구별 기본 어휘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aguacate 등이 포함되는데 Lope Blanch는 연구를 통하여 95개의 어휘를 구분해 놓았다. 대부분의 어휘가 동식물군의 이름과 음식, 음료 등 먹는 것과 관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주민어가 멕시코 사람의 가장

하는데 단순히 어휘를 암기하기보다는 그 배경이나 그림 사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을 갖도록 설명해야 한다. 스페인 스페인어나 한국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어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복적 사용을 통해서, 또는 문화적인 이해를 통해서 친숙해지도록 교육해야 하며, 특히 기본 어휘라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급수준에서라도 잘 익히도록 해야 한다.

guayaba의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정리해 보면 “구아바는 높이 3~7m로 가지를 많이 치는 식물로 잎을 누르면 강한 향기가 난다. 열매는 공 모양 또는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연한 붉은빛으로 익고 향기를 풍기며 작고 단단한 종자가 여러 개 들어 있다. 과육은 즙이 많고 달콤하며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날로 먹거나 통조림·과바젤리·과바치즈·잼 등의 원료로 쓴다. 재배하기 쉽고 기온 및 토양 조건에 대한 적응 범위가 비교적 넓으나 열대에서 아열대의 중간 조건이 가장 적당하다. 아메리카 열대지방 원산의 재배식물로 아열대에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¹⁷⁾고 되어있다. 여기에 사진을 함께하거나 실물이 있으면 더 많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한국에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 어휘 대상을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하고 반복적인 문화설명을 통해 자연스러운 기초어휘로 바뀐 것을 스페인 스페인어의 경우에서 이미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bocadillo, paella, alcachofa, tortilla 등이 그러한 예로 멕시코 스페인어의 경우에서도 특히 기본 어휘만큼은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어휘들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본어휘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tequila, taco, quesadilla등과 같은 일부 어휘들은 문화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는 만큼, 낯선 어휘라도 기본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생활의 어휘들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멕시코의 스페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휘들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 역시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2에 속하는 어휘 중에서도 기본 단어가 있다면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교육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본다.

IV. 결론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4억에 달하는 인구가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멕시코) 스페인어의 언어 차이에 의한 언어교육에서의 빈 공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고민하는 문제이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멕시코 스페인어의 교육은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멕시코 스페인어 어휘의 특징에 따라 주요 해당 어휘를 살펴보고 기본어휘를 선정 분류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려 했다. 물론 어휘선택이나 기본 어휘선정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인 면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멕시코 스페인어의 실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인 점을 생각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

기본어휘의 분류, 검토를 통해서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다른 경우, 특히 멕시코의 어휘가 스페인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때 스페인어 학습자는 이 어휘들의 올바른 이해가 어렵다는 점과 의고주의에 해당하는 멕시코 어휘들은 현재는 스페인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기에 역시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에 전자의 경우는 두 지역의 의미를 구별하여 기억하게 하여야 하며, 후자는 바로 암기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두 지역의 어휘가 달리 사용되는 경우는 동의어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주민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문화교육이 병행되어 이해를 도와야 할 것으로 보며, 상당히 많은 수의 어휘가 영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나고 있으나 오히려 이 경우는 한국학생에게는 사실상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만 다루어지는 어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휘

라면 교수자가 미리 선정하여 그 어휘들을 제시하고 익히게 하며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어휘가 스페인어에 존재하더라도 멕시코의 기본어휘는 반드시 교육해야 두 지역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주요 기본 어휘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폭 넓고 체계적인 중남미(멕시코) 스페인어의 교육방법이 계속 나와 균형 있는 스페인어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우성(2000), “스페인어 교육과 중남미 스페인어”, 『서어서문연구』, 16, 3-28.
_____(2001),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의 표준어의 문제”, 『서어서문연구』, 18, 85-104.
- 김현창(1990), 『스페인어 발달사』, 신아사.
- 유해명(1995), “우리는 어느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는가?”, 『서어서문연구』, 8, 51-61.
- 이강국(2001), 『스페인 언어문화사』, 송산출판사.
- Fernández López, Justo., *El español de América*, en [http://culturitalia.uibk.ac.at/hispanoteca/ Kulturkunde-LA/El%20espa%C3%B1ol%20americano.htm](http://culturitalia.uibk.ac.at/hispanoteca/Kulturkunde-LA/El%20espa%C3%B1ol%20americano.htm)
- Gómez de Silva, G.(2001), *Diccionario breve de mexicanismo*, México, FCE.
- Hualde, J. I. y otros(2001), *Introducción a la lingüística hispánica*, Cambridge.
- Lara, L. F. *Teoría y método en el diccionario del español de México*, en http://cvc.cervantes.es/obref/congresos/sevilla/unidad/ponenc_lara.htm
- Lope Blanch, J. M.(1972), *Estudios sobre el español de México*, México, UNAM.
- _____(1979), *Léxico indígena en el español de Méxic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López Morales, U.(1998), *La aventura del español en América*, Madrid, Espasa.
- Morala, J. R. *Diccionarios de variantes del español*, en <http://www.unileon.es/dp/dfh/jmr/dicci/006.htm>
- Moreno de Alba, J. C.(1999), *El lenguaje en México*, México, S.XXI.
- _____(2003), *La lengua española en México*, México, FCE.
- Obediente Sosa, E.(2000), *Biografía de una lengua*, Costa Rica, LUR.
- Ralph, P.(1993), *Gramática histórica del español*, Barcelona, Ariel
- Steel, B.(1999), *Breve diccionario ejemplificado de Mexicanismos*, <http://bdsteel.tripod.com/EspanolSpanish/Mexdict.htm>
- <http://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서경석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 1-201
E-mail; suhahn@unitel.co.kr

논문접수일: 2005년 10월 31일
논문심사일: 2005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2일